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339

JCCT 2019-11-41

## 한국 원작영화와 중국 리메이크영화의 문화차원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Dimensions between Korean Original Films and Chinese Remake Films

오연

WU JUAN

**요약** 이 논문은 최근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한국영화를 빈번히 리메이크하는 현상에 주목해 한국 원작영화와 중국 리메이크영화의 텍스트 분석과 비교를 통해 각각의 영화 속에서 두 나라의 문화차원들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스릴러 영화인 <블라인드>와 중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 <나는 증인이다>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그 동안 비교문화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네덜란드의 조직심리학자 홉스테드(Greet Hofstede)의 문화차원 연구를 바탕으로, 두 영화 안에 함축된 문화차원을 비교했다.

**주요어** : 한·중 비교연구, 리메이크영화, 트랜스내셔널 시네마 문화차원

**Abstract** This is a comparative cultural study on the cultural dimensions of the Korean original film and its Chinese remake film.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ultural dimension study by Dutch organizing psychologist Geert Hofstede (1991). In this research I have tried to compare cultural dimensions that are shown implicitly in the original Korean film of “Blind” and its Chinese remake, entitled “The Witness”, in terms of the narrative structures.

**Key words** : Korea·China comparative study, Remake films, trans-national cinema, cultural dimensions

#### 1. 서론

최근 아시아에서는 영상콘텐츠의 리메이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영화의 중국 리메이크는 더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한·중 영화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합작영화 제작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영화교류의 형식은 합작보다는 리메이크영화가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5년에 한국영화 <블라인드> (“Blind”, 2011)와 <수상한 그녀> (“Miss Granny”, 2014)의 리메이크

작이 중국에서 흥행을 하면서 한·중 영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하였다. 그 후 거의 매년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작이 중국에서 상영되고 있다. 그러나 리메이크 영화들 중에는 실패한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숨바꼭질>이나 <극한직업>처럼 한국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중국에서는 리메이크작이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서로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나리오를 만들면 성공적인 작품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라는 결론을 끌어내기도

\*정회원,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강사(주저자)  
접수일: 2019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11일

Received: October 3, 2019 / Revised: October 25, 2019

Accepted: November 11, 2019

\*Corresponding Author: galway@hufs.ac.kr

Dept. of Chi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한국영화를 빈번히 리메이크하는 현상에 주목해, 한국 원작영화와 중국 리메이크 영화의 서사구조 분석과 비교를 통해 각각의 영화 속에서 두 나라의 문화차원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로는 “대중의 호응을 얻은 영화인가?”와, 둘째로는 “장르를 대표하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영화인가?”였다. 영화 <나는 증인이다>는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에서 1억 2천만 위안(CNY)을 기록하며 중국 내 1위를 차지한 작품이다. 흥행성은 물론 중국정부의 까다로운 심의 문제로 중국에서 제작이 기피되고 있는 범죄 스릴러 장르로 중국영화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영화 리메이크의 첫 사례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두 영화는 같은 감독의 작품으로, 감독의 영향에서 비롯한 차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연구는 두 영화의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를 위주로 하여 비교분석하겠다. 여기서는 서사의 3대 구성요소, 즉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원작영화와 리메이크영화의 서사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그 다음에 이런 서사구조의 차이점은 네덜란드의 조직심리학자 홉스테드(Geert Hofstede)의 문화차원과 연관시켜 두 나라의 문화차원을 비교해 보겠다. 차원이란 여러 문화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문화의 한 측면을 말한다. 하나의 차원은 경험적 연구에서 실제로 함께 발생함을 볼 수 있는 현상들을 묶어 준다.\* 홉스테드는 정기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하는 많은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 문화차원을 제시 하였다. 문화에서 가치는 관행보다 더 안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화 비교 연구는 가치의 측정을 기점으로 한다. 따라서 여섯 가지 문화차원은 국가간 문화의 차이를 밝힐 때 적절한 기준이 된다.

## II. 서사구조 비교분석

### 1. 인물설정 비교분석

리메이크 작품은 큰 틀에 있어서 원작과 스토리

\* Geert Hofstede, Gert Jan Hofstede, Michael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for the Mind*, McGraw-Hill, 2010,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2014, 54-55쪽.

구성, 인물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 <블라인드>와 <나는 증인이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어느 비가 오는 밤에 뺑소니 사고가 나는데 두 명의 목격자가 있다. 한명은 당시에 차에 타던 시각장애인(영웅)이고 하명은 현장을 봤던 젊은 남자(증여자)다. 경찰(조력자)은 결국 범인(악당)을 발견했지만 잡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영웅)은 증여자의 도움으로 결국 범인을 잡았다. 그 범인은 연속적인 여대생 실종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물은 플롯을 이끌어 감에 있어 중요하다. 인물은 크게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로 분류했는데, 영화에 제일 많이 등장한 범인 “택시 기사”와 두 명의 목격자는 주요 인물로, 경찰, 피해자, 여주인공 남동생, 그리고 안 내건은 주변인물로 설정했다.

#### 1) 중심인물 비교분석

먼저 <블라인드>의 여주인공 ‘민수아’와 <나는 증인이다>의 여주인공 ‘샤오싱’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사건 목격자가 된 설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작의 여주인공은 보육원 출신이고, 보육원 원장이 엄마의 역할을 했지만 중국판에서는 여주인공이 부잣집 딸이다.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 ‘김기섭’과 ‘린총’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한국 원작 속의 기섭은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치킨 배달을 하다가 목격자가 되고 경찰을 꿈꾸게 되는 설정이다. 때문에 초반에는 “씨팔!” “엄창!” 등의 표현을 쓰면서 약간 불량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와는 다르게, 가출 청소년처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인물이 중국영화에 등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린총’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의,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를 준비하는 젊은이로 설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후에 샤오싱 남동생의 밴드에 들어가 보컬을 담당하고 유명한 스타가 된다.

이야기 전개에서는 악인도 중요한 캐릭터다. <블라인드>의 범인 ‘최명진’은 낮에는 작은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하고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밤에는 다르다. “납치범, 강간범, 살인범”이 된다. 그의 목적은 성(性)과 폭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면을 쓴 상태에서는 매우 친절하지만 범행을 저지를 때는 잔인하고 변태적이다. 한편, 중국에서 낙태시술은 합법이다. 그러나 낙태시술 장면을 보여주기가 곤란해 중국 리메이크에서의 범인

인 ‘탕쟁’은 성공한 성형외과 의사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증인이다>에서 적대자의 목적은 복수다. 복수하는 대상은 즉석만남 앱(App)을 사용하는 여자들이다. 그런 앱(App)을 사용하는 여자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며 그 배경에는 앱(App)을 사용하는 여동생을 선도하다가 실수로 여동생을 죽인 과거가 있다. 그때부터 복수를 시작하는데, 즉석만남 앱(App)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을 잡은 후에 죽은 여동생 모습으로 성형해 구금한다.

## 2) 주변인물 비교분석

<블라인드>와 <나는 증인이다>에서 각각 경찰 역으로 등장하는 ‘조형사’와 ‘루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중국의 영화검열제도와 제일 관련 깊은 부분이라 수정된 내용도 많다. 원작의 조형사는 사투리를 쓰면서 경찰 내부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설정이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시각장애인 목격자의 진술서를 쓰고 수사를 혼자 맡아 한다. 한편, 원작과 똑같이 중국의 공안경찰을 표현하면 분명히 “악의적으로 인민군대 및 공안을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부터 간부급의 공안국 형사대대 대장이 이 사건을 맡았고, 그는 친절하고 일처리가 빠르고 헌신적이다.

마지막으로, 두 영화의 희생양으로는 피해여성과 안내견이 포함된다. 여주인공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내견이라는 캐릭터가 필요하다. 두 영화에서는 안내견에 대한 설정이 거의 비슷하다. 대사는 하나도 없지만 주인을 잘 돌보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바쳐서 여주인공을 구해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다. <블라인드>에서 피해여성은 범인이 무작정 선택한 대상이다. 범인이 봤을 때 약해 보이는 여성(시각장애인,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 술 취한 여자)을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여성은 선택할 권리도 없고 기회도 없다. 피해여성들의 연이은 죽음 때문에 사건은 연쇄살인사건이 된다. <나는 증인이다>에서 나타난 피해여성은 즉석만남 앱(App)을 이용해서 범인과 만나게 된다. 전체 여성이 아니라 범인의 도덕률로 판단할 때 “쉬운 여자”, “안 좋은 여자”를 범행 대상을 정하며 그 기준은 즉석만남 앱(App)을 사용하는 여자들이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여성들을 죽이지 않고 성형을 시킨다.

두 여주인공의 남동생 ‘김동현’과 ‘량총’도 두 가지 설정이다. 두 남동생의 공통점이 있다면 친동생이 아니라

는 것과 순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동현은 민수아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랐다. 춤을 좋아하고 보육원의 지하실을 연습실로 꾸민다. 비보이를 꿈꾸며 수업을 자주 빠진다. 중국판 리메이크의 남동생 량총은 샤오싱의 의붓동생이다. 중국의 “한 가족 한 자녀” 정책의 영향도 있고 “극중의 인물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이 같은 설정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량총은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좋아했다. 별장 안에 연습실도 있고 자기의 밴드도 만들어 보컬 역할을 맡아 유명한 록음악 <충얼페이(虫儿飞)>를 불렀다. 중국에서는 비보이와 같은 힙합 문화는 아직 매우 소수적인 문화다. 힙합문화는 원래 사회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문화로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성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중국 정부는 힙합문화에 대해 비판적인데, 중국 힙합은 아직 성장단계이며 젊은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사건의 전개방식 비교분석

두 영화는 모두 전형적인 3막 구조의 플롯으로 진행되며 플롯을 구성하는 핵심사건들이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다. 먼저, 두 영화를 주요 국면들을 중심으로 시퀀스(Sequence)를 나누어본 결과 모두 13가지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 영화가 스토리 구조의 전략에 있어 옛이야기와 같은 보편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야기의 최초의 상황은 프로프(Vladimir Propp)의 기능 중 부재나 결핍으로 나타나고 최후의 상황에서는 불행이나 결여의 해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의 변동을 위해서는 세 가지 시련의 극복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보편성 때문에 양국의 관객을 확보할 수 있다.

두 영화의 메인플롯은 거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모두 도입부 5분 동안에 주인공이 남동생을 찾아가 혼내고 데려오고 남동생이 도망가고 다시 잡혀오고 차 안에 갇혀 사고가 나고 남동생이 죽는 것까지 많은 내용을 포함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농축된 정보를 전달해 준다. 핵심사건을 도입부에 놓아 관객에게 충격을 주어 반향을 일으

\* 안상훈, 「한중합작영화 리메이크 과정을 통해 본 중국 영화계의 현주소: 영화 <블라인드(BLIND)> 와 <나는 증인이다(我是證人)> 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7권 11호, 2017, 327쪽.

키게 하고, 그 원인에 대한 궁극증을 통해 극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메인플롯은 하나의 미스터리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듯 서서히 정보를 제시해주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관객은 보여준 정보를 가지고 주인공과 같이 경찰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건을 추리해 나간다.

그리고 변모의 플롯을 가진다. 스릴러영화는 일종의 자기 반성적 내러티브 구조를 갖는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면’이 있으며, 이러한 면이 어떤 악의적인 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불안 심리와 정체성 탐구가 플롯에 반영된다. 두 영화에서 변모의 플롯은 주인공에 의해 전개된다. 실수로 남동생을 잃어버린 주인공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의 완성을 이루어 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본질과 대면한다. 또한 범인과 투쟁하면서 진실을 알아낸다. 때때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지만 결국은 범인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식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내면의 심리 드라마 성장드라마 형태를 이룬다.

두 영화의 서브플롯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블라인드>는 희생플롯을 통해서 한국 형사와 형사 집단을 풍자하고 있다. 융통성이 없고, 무능력하고, 안 좋은 집단 문화가 있고, 따돌림 시키고, 무책임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반대로 <나는 증인이다>는 경찰에 관한 희생 플롯이 없다. 오히려 경찰대장 루리는 용감하고 적극적이며 팀원들과 단합한다. 주인공은 변신의 플롯에 속하며, 범인도 변신의 과정을 보여줬다. 성공한 성형외과 의사가 범인으로 변하는 과정은 주인공의 변신과 대조된다. 둘 다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범인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 결국 범죄자가 된다는 설정이다. <나는 증인이다>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고, 주인공과 두 번째 목격자 관련된 플롯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이 가미됐다.

### 3. 시·공간적 배경 비교

영화의 내러티브란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엮어진 사건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영화의 공간은 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잘 짜여진 공간은 그 자체로 영화의 내러티브를 설명할 수 있다. 영화 내러티브의 긴

장은 주어진 시간-공간 속에서 발생하는데, 영화의 공간에 시간적 통합성을 부여함으로써 내러티브가 발생한다.

<나는 증인이다>의 시간 배치는 <블라인드>와 거의 비슷하다. 두 영화의 시제 서술 방식에 대해서는, 두 영화 중간부와 후반 부분은 다 플래시백(flash back)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 일을 일어나는 곳에 가보는 행위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제의 혼용 등을 통하여 서술하고 있다. <나는 증인이다>에서는 범인의 플래시백(flash back)을 통해서 그가 겪은 트라우마를 재현해서 인물의 감정과 이미지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런 시제의 혼용은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블라인드>에서 나온 공간은 대표성이 한국의 로컬리티라는 특정성 있는 곳이다. 한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회의 정체성은 전체 도식 속에서 그들이 혹은 그 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보육원, 뒷골목, 치킨집, 불법산부인과 등 가시적 기호들은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며, 주류 사회로부터 주변화된 공간들이다. <나는 증인이다>에서는 주인공과 남동생이 어렸을 때 같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관계로 설정하였으며, 부모님 재혼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된다. 그 집이라는 공간은 바로 별장이다. 마지막 공간은 매우 큰 공연장이다. 도입부에서 지하공연장과 완벽히 대칭이다.

또한 추격전이 세 번 나왔는데 각각 일어나는 공간도 다르다. <블라인드>의 첫 번째는 매우 좁은 뒷골목으로 뒷골목의 풍경과 삶을 보여줬으며, 두 번째는 지하철에서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닫힌 공간이다. 마지막은 고아원에서 일어났다. 지하철역과 보육원은 ‘추격전’이라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다. 여자 주인공이 시각장애인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영화는 지하철역이라는 공간을 미시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매우 흥미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증인이다>도 세 번의 추격전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사건만 별장 안에서 일어나고, 두 번은 건물과 도로에서 일어났다.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담론이기도 하다.\*\* 특히 세 번째 추격전은

\* 段義孚 저, 심승희·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256쪽.

\*\* 각색 작가에 대한 인터뷰에서 “촬영허가를 못 받아서 버스과 건물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顧小白, 楊天東, 「《我是證人》編劇談」, 『當代電影』12期, 2015,

버스에서 찍다가 도로에서 찍다가 다시 건물 안에서 찍다가 마지막은 지하주차장에서 찍었다. 공간의 빈번한 변경은 관객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또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줄인다.

### III. 서사구조에서 나타난 문화차원

문화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 중에 네덜란드의 조직심리학자 홉스테드(Geert Hofstede)의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을 주목해 보겠다.

문화적 차이가 문화실천 이전의 근본적인 차원, 곧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홉스테드가 문화차원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홉스테드는 대량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6가지 문화가치\*의 차이점을 밝혔다. 그것은 권력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individualism) 문화와 집합주의(collectivism) 문화,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masculinity-femininity), 불확실성 회피문화와 수용문화, 장기지향(long-term orientation) 문화와 단기지향(short-term orientation) 문화, 자적(방종)(indulgence) 문화와 자제(구속)(restraint) 문화다. 이상의 여섯 가지 문화지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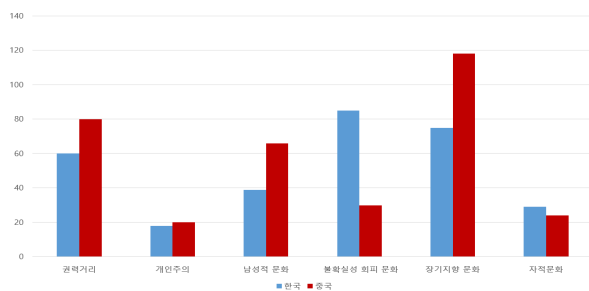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중국의 문화차원 비교  
 Figure 1. The Cultural Dimensions of Korea and China

38-41쪽.

\* Geert Hofstede, Gert Jan Hofstede, Michael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for the Mind*, McGraw-Hill, 2010,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2014. 참조.

홉스테드의 이론을 토대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동질적인 면과 이질적인 면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특성과 그에 따라 영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블라인드>에서 나타난 문화차원

우선 권력거리에 대해서 한국은 권력거리가 높은 나라로 영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블라인드>의 인물, 사건, 배경은 권력거리가 큰 사회의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자기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다. 어린이들끼리도 권위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연하의 아이는 연상의 아이에게 양보하게 된다. 이것은 영화에서 남동생과 누나 간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동생의 죽음마저도 누나에게 선도당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또한 한 사회 안의 불평등은 다른 사회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계층을 구분하지만 한 사회 안의 불평등은 국가마다 다르다. 조형사가 “이 사회에서 말이 되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경찰서에서는 서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부하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묘사에서도 큰 권력거리가 느껴진다. 여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신고할 때 그녀는 형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이는 의존적 존재로 치부되곤 하는 약자 곧 여성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홉스테드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성향을 측정한 지수는 한국이 18이다. 이는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한국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더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블라인드>는 집단주의가 강한 캐릭터도 있고, 개인주의가 강한 캐릭터도 있다. 주요 역할을 하는 조형사는 늘 집단 이익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한다. 자기의 정체성을 “형사”나 “경찰”로 정의할 때 그 근원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비롯된다. 또한 형사로서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화가 궁극적 목표로 “우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다른 경찰들의 집단주의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만 생각하고 자기가 일을 안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 일처리 효율성도 떨어진다.

다음에 남성성 문화와 여성성 문화에 대한 분석이다. 홉스테드의 연구에서 중국의 남성주의 지수는 66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은 39로 여성성 지수가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서사코드는 남성성의 특징이 더 많이 존재한다. 캐릭터들의 행동은 매우 거칠다. 범인은 여자를 상당히 무시한다. 폭력적이고 남성성의 상징인 총을 사용하며 강한 남성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캐릭터가 처한 시·공간 배경을 보면 고아원, 장애인택시 등 복지사회의 편리시설 등 여성적 사회의 특징을 가진다.

한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다. <블라인드>의 등장인물들은 다 사회적 소수자다. 보육원 아이, 시각장애인, 배달하는 가출소년, 따돌림 당하는 지방 형사,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 사회의 음지를 다루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블라인드>에서 처음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러 경찰서로 간 여자주인공은 불만을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엄마와 말다툼이 있을 때도 화를 참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으며, 따라 오면 다시 안 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남자 목격자와 오해가 생기자 싸울 듯이 말다툼을 하였다. 남동생의 죽음도 그녀의 과한 감정 표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홉스테드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장기지향의 특징을 가진 나라다. <블라인드>에서 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판단할 때 증거보다 직관적인 느낌으로 주관적 사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조형사는 상사 때문에 힘들게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목숨까지 희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과 중국영화에서 감성적 인간과 이성적 인간을 함께 배치하는 등장인물의 관계설정을 통해 에피소드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두 인물의 관계는 다르다. 한국영화에서 대부분 대립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감성적인 판단은 사실과 가깝지만 늘 이성적인 판단에 지게 된다. 이성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힘이 더 세다.

한국영화는 과거의 행위나 인연이 현재로 연결되며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러한 스토리 전개를 통해 인물들이 살아온 과거의 행위를 중시하며 자신의 과거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

이것은 한·중의 공통점이다. 또한 과거의 성취나 명예 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리워하는 표현도 다수 등장한다. 미래지향적 표현은 <블라인드>의 마지막에 지섭이 자기도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준다. 수아가 꿈을 이루는 긍정적 모습도 미래지향적이다. 또한 영화에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다. 조형사는 물론, 여주인공과 지섭이 보육원에서 범인과 최종대결을 할 때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구하려고 한다. 심지어 안내견도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되었다. 이런 설정들로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제문화와 자적문화에 대한 분석이다. 자제(自制)는 삶 즐기기과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자연적 욕망에 대한 충족이 엄격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제되고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한국은 자제문화에 속하지만 중국보다 자적문화에 더 가깝다. 즉 삶 즐기기과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 욕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블라인드>에서 나온 인물들은 도덕적 절제력이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범인의 낙태시술은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나쁜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옛날에도 환자에 대한 성추행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고 의사자격증까지 취소당했는데 다시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범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이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느슨한 일처리도 자적 문화와 적합하다. 한국은 “빨리빨리”가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한국이 빠듯한 사회라는 것이 아닌 한국 사람의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한국사회는 매우 느슨한(loose) 사회다. 느슨한 사회에서는 규범이 폭넓은 대안 채널들을 지니고 있고 일탈행동이 쉽사리 용인된다. 그래서 경찰들의 일처리가 매우 느리고, 사건의 해결도 오래 시간이 걸린다.

## 2. <나는 증인이다>에서 나타난 문화차원

중국도 권력거리가 높은 나라로 간주되지만 <나는 증인이다>는 오히려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주인공과 남동생의 사이는 권력거리라기 보다 가족 간

\* Geert Hofstede, 위의 책, 2010; 차재호·나은영 역, 위의 책, 2014, 132-156쪽, 132-156쪽.

\*\* Geert Hofstede, 위의 책, 2010; 차재호·나은영 역, 위의 책, 2014, 132-156쪽, 320쪽.

의 사랑과 정으로 설정했다. 또한 범인과 여동생도 비슷한 설정으로 여동생을 사랑해서 혼내는 것을 합리화 시켰다. 그리고 영화 속에 사회의 불평등한 면모보다는 화합하는 면모가 강조된다. 누군가를 왕따 시키는 일도 없고 등장인물들은 서로 존중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타심을 많이 보여준다. 일례로 경찰은 샤오싱에게 택시도 잡아주고, 많이 배려해 준다. 또한 인물 간의 대화를 보면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집단주의 성향 지수는 20이다.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다. <나는 증인이다>는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설정이 많이 있다. 경찰은 혼자 행동하지 않고 적어도 두 명이 같이 행동한다. 또한 긴급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예를 들면 루리는 지하 주차장에서 범인에게 공격당해 일어나지 못하지만 다른 경찰들에 의해 빨리 발견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루리는 집단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당한다. 일과 개인적인 삶은 하나가 된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 처리하고 경찰서에서 밤새거나 자는 일이 종종 있다.

중국은 남성주의문화에 속한다. <나는 증인이다>는 남성 권위주의 사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성에 대해 터놓고 말하기를 금지하고 성적인 이야기가 없다. 또한 즉석만남 앱은 매우 나쁜 걸로 인식하고 신분 상징적 제품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영화 속의 린충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자체가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남자 목격자가 뺑소니 사고를 봤는데 차종을 모르고 외제차라는 것만 아는 것과 달리, <나는 증인이다>에서 남자 목격자는 정확하게 차종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모든 차종을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캐릭터의 행동은 오히려 부드러운 면을 더 많이 보인다.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범죄자이지만 마음속에는 정이 많은 사람이다. 폭력적인 면을 많이 안 보여주고 오히려 말이 많고 여동생에 대한 깊은 정을 많이 보여준다.

<나는 증인이다>에서 범인은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동양적 전통의 인물이다. 먼저 범인은 남성의 관점에서 여동생(여성)의 옷차림 등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동생이 SNS를 이용해서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를테면 “이렇게 입는 것을 보면 누가 너를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겠어?”, “너 또 그 더러운 앱으로 남자 만났지?”와 같은 표현이다. 이와 함께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성을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답론이 나타난다. “내말 왜 안 들어? 내가 니들 좋으라고 하는 걸 몰라?”, “여자들이 왜 마음대로 낯선 사람과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어?”, 등 자기의 기준으로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를 나눈다.

중국은 불확실성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나라다. <나는 증인이다>는 젊은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포용력과 중용을 강조하는 것 등 불확실성 수용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영화에서 주로 청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는 증인이다>는 <블라인드>와 등장인물이 전혀 다르다. 다들 존경받고, 예쁘고, 멋지고, 성공한 사람들이다. 유일한 신체적 사회 약자 샤오싱도 부잣집 딸이다. 경찰도 리더십을 보여주며 친절하고 효율적이다. 이야기 자체가 아름다운 꿈을 보여준다. 현실에 대한 반영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일을 풀어나간다.

홉스테드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도 장기지향의 특징을 가진 나라다. <나는 증인이다>에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판단할 때 증거보다 주관적 사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 루리는 처음에 직관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조사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선택적인 감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영화에서 두 인물의 관계는 상부상조다. 이것은 유명한 고전 소설 <서유기>에서도 나온다. 진경을 구하러 서천으로 떠나 삼장법사는 마음이 착하고 감성적인 캐릭터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늘 여러 요괴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손오공이 등장하고 삼장법사를 도와준다.

시간을 표현할 때 중국영화에서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징을 지우는 방식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표현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여준다. <나는 증인이다>에서는 물건을 통해서 과거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범인은 여동생을 잊지 못해 어디를 가든 여동생이 좋아하던 오르골을 들고 다닌다. 또한 여주인공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타가 깨진다는 것을 통해서 과거와 이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영화에서는 모두 미래를 위한 노력과 인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희생정신은 두 영화가 비슷하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미가 강하다. 경찰 대장 루리가 칼을 맞고 의식을 잃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은 여주인공이 위험에 빠졌으니 빨리 가서 구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제문화가 강한 나라다. <나는 증인이다>의 등장인물은 절제력이 강하며 예의바르고 착하다. 또한 “절약”이라는 가치도 강조한다. 여주인공이 어렸을 때 돈을 아껴 남동생한테 기타를 사줬다는 설정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야기 전개에서도 그 기타가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남자 주인공이 뺑소니 사건을 신고한 이유도 새로운 인라인스케이트를 사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정형편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모아 사고 싶은 것이다. 한국의 “빨리빨리”와 달리 중국에서 “慢慢(천천히)”가 자주 쓰는 단어다. <논어>에는 “欲速則不達”<sup>\*</sup>라는 말이 있는데 일을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여유 있게 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이 느슨한 사회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중국사회는 집단 조직의 강력한 가치들, 즉 영구성, 내구성 및 연대의식을 유지하며, 영화에서도 경찰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중국은 빠듯한 사회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IV. 영화에서 나타난 한·중 문화차원과 서사특징

위와 같이 <블라인드>와 <나는 증인이다> 두 영화의 인물 설정, 사건 전개 방식, 메인플롯과 서브플롯, 그리고 시간과 공간 배경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서 서사구조에 나타난 두 나라의 문화차원을 분석해 보았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블라인드>의 문화차원과 서사특징  
Table 1. The Cultural Dimension and narrative structure of <Blind>

블라인드	
문화차원	서사특징
높은 권력관계	상명하복, 불신
집단주의	집단 충성심, 헌신(獻身), 따돌림, 관료주의
여성주의사회	여경찰 캐릭터. 폭력, 욕설, 하층계급
불확실성 회피문화	소극적 캐릭터, 거부적 태도, 사회에 대한 불만
장기지향문화	감성적 일처리. 과거에 대한 수치심
자제문화	도덕적 절제력 부족한 인물. 느린 일처리

표 2. <나는 증인이다>의 문화차원과 서사특징  
Table 2. The Cultural Dimension and narrative structure of <The Witness>

나는 증인이다	
문화차원	서사특징
낮은 권력관계	평등, 화합
집단주의	집단 충성심, 헌신(獻身), 단결, 효율적
남성주의사회	여경찰 캐릭터. 여성에 대한 설교, 여성성이 강한 범인
불확실성 수용문화	젊은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적극적 캐릭터
장기지향문화	상부상조, 과거에 대한 수치심
자제문화	도덕적으로 절제력이 강한 인물, 효율적인 일처리

한국과 중국 모두 높은 권력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블라인드>에서 상명하복, 불신 등 플롯을 통해서 높은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반면에 <나는 증인이다>에서는 평등하고 화합한 상하관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관계를 보여줬다. 두 영화가 집단주의를 표현할 때 집단 충성심과 헌신(獻身)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블라인드>는 따돌림과 관료주의의 제시를 통해서 부정적 집단문화를 보여줬다. <나는 증인이다>는 단결하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통해 적극적 집단문화를 담았다. 한국은 여성성이 중국에 비해 강한 나라지만 영화에서 폭력, 욕설이 빈번히 등장하여 강한 남성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하층계급에 대한 재현은 여성적 사회의 특징을 가진다. 중국은 남성주의문화에 속해서 영화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교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범인도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동양적 전통의 인물이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국은 강한 불확실성 회피문화를 가져서 소

\* 《論語·子路》：“無欲速，無見小利。欲速則不達，見小利則大事不成”.



극적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보여 준다. 중국은 불확실성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서 영화에서 적극적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두 영화 속에 등장인물들은 모두 과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지향성 문화를 가진다. <블라인드>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도덕적 절제력이 약한 특징을 가지고, 느슨한 일처리를 보여줘서 중국보다 자적문화에 더 가깝다.

## V.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원작 영화<블라인드>와 중국 리메이크영화<나는 증인이다>의 서사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홉스테이드의 문화차원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서사구조 속에 함축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영화는 비슷한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차이점도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집단주의', '장기지향문화', '자제문화'의 공동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의 서사표현은 다르다. 또한 한국은 '높은 권력관계', '여성주의사회', '불확실성 회피 문화'의 특징을 가진 반면에 중국은 '낮은 권력관계', '남성주의사회', '불확실성 수용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로컬라이제이션 (localization)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리메이크도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학술 연구와 저널리즘 비평은 우리 시대의 대중적 각색을 대부분 이차적인 것, 파생된 것 등으로 치부해 왔다.\* 이제는 원작에 얼마나 충실한지보다 현지화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원작 콘텐츠가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은 현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지화에 대한 도전을 수반하며, 현지화는 종종 언어적 특수성과 문화적 차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나라의 문화가 초국적 이동을 거칠 때 상대적으로 친숙한 부분이 있는 반면, 지역적 특수성에 의한 생소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한 생소한 부분을 지역적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리메이크다. 다만 이 두

영화를 분석한 결과만을 가지고 두 문화의 차이를 보편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영화의 관객들이 두 영화를 어떻게 관람했으며 영화 속에 등장한 문화 코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양적, 질적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

## References

- [1] Hutcheon, Linda, A Theory Of Adaptation, Routledge, 2006.
- [2] Michael Cronin, Translation and Identity, Routledge, 2006.
- [3] Geert Hofstede, Gert Jan Hofstede, Michael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for the Mind, McGraw-Hill, 2010
- [4] Sang-hoon Ahn, The Present Status of the Chinese Film Industry through the Remake of the Korean-Chinese Joint Film - The Case of the Movie 「BLIND」 and 「I am a wit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017.
- [5] Son, Mi-young, A Study on the Cooperative Patterns of Literature and Drama -Focused on <Dokebi, The Lonely and Great God>, <Gentlemen's Dignity>, JCCT, 2019.
- [6] Wu Juan,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dimensions and culture codes between Korean original films and Chinese remake film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9.
- [7] Movie 「BLIND」, 2011
- [8] Movie 「The Witness」, 2016

\* Hutcheon, Linda, A Theory Of Adaptation, Routledge, 2006, 7-9쪽.

\*\* Michael Cronin, Translation and Identity, Routledge, 2006, 28-30쪽.

\*\*\* 이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오연, 「한국원작영화와 중국 리메이크영화의 문화차원과 문화코드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